

보도자료

2015년 6월 18일 공보 2015-6-21호

이 자료는 6월 19일(조)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
6월 18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한국은행,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메르스 피해업체 지원

- 한국은행은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, 외식, 소매판매, 병·의원, 학원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지원하기로 하였음(2015.7.1일 시행)
 - 세월호 사고 당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중 특별지원한도(1조원)의 여유분 5,5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
 - 특별지원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(1,000억원)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방침
 - 기존 특별지원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
 - 지원대상 업종 : 기존 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, 여행업, 운수업, 여가업에 병·의원업, 교육서비스업을 추가
 - 지원기간 : 2015.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(은행대출 취급시점 기준)
- 한국은행은 메르스 사태의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지원규모, 지원대상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

<붙임> 「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메르스 피해업체 지원방안」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김태경, 차장 김봉기, 과장 박주하
Tel : 759-4491, 4502, 4712 Fax : 759-4490

공보실 : Tel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(붙임)

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메르스 피해업체 지원방안

- 지원대상 :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중 특별지원한도 지원 대상 업종(음식·숙박업, 도소매업, 여행업, 운수업, 여가업) 및 병·의원업,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운전자금대출 (만기 1년 이내)
 - 만기연장 및 재대출(중도상환 후 재대출 포함) 등도 포함
- 지원규모 : 약 5,500억원(특별지원한도 1조원중 여유분)을 우선 지원
 - 특별지원한도 소진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(1,000억원)을 추가적으로 활용
- 은행대출 취급기간 : 2015. 7. 1 ~ 2015. 12. 31(6개월간)
 - 당초 2015.8월말 종료 예정인 특별지원한도의 취급기간을 4개월 연장
- 지원기간 : 대출건별로 최장 1년간 지원
- 한도배정 : 은행대출 취급기간중 대출실적의 25%*를 지원
 - * 한국은행 지원규모 5,500억원을 전제할 경우 은행 대출실적 기준으로는 총 2.2조원까지 지원 가능
- 지원금리 :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.75%를 적용
- 시행시기 : 2015.7.1일(은행 대출취급 기준)